

재미교포 노예림 AJGA 올해의 여자 선수

재미교포 노예림(17, 아마추어 랭킹 22위)이 미국 주니어골프협회(AJGA) 올해의 주니어 여자 선수에 선정됐다.

AJGA는 22일 “올해 전국 대회에 9차례 출전해 4번 우승하고 12위 밖으로 밀려난 적이 없는 노예림을 올해의 주니어 여자 선수에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노예림은 1998년 미국으로 이민 온 아버지 노성문 씨와 어머니 김지현 씨의 외동딸로 175cm의 큰 키에서 뽑아내는 장타가 특징으로 꼽힌다.

노예림은 지난 4월 하나금융그룹 박세리 주니어 골프 챔피언십에서 우승했고, 7월에는 걸스 주니어 PGA 챔피언십과 US 걸스 주니어 챔피언십을 연달아 제패하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그는 또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에도 두 차례 출전, 8월 캐나다오픈 공동 46위와 10월 KEB하나은행 챔피언십 공동 59위를 기록했다.

노예림은 AJGA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렇게 큰 상을 받아 영광”이라며 “연초만 해도 이 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까지 골프를 하면서 이룬 가장 큰 업적”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노예림이 수상한 AJGA의 ‘올해의 주니어 선수상’은 1978년 창설됐다. 1985년 펄 신이 한국 국적 또는 한국계 선수로는 처음 수상했고 1994년과 1996년 박지은, 2000년 송아리, 2002년 박인비가 이 상을 받았다.

크리스티 커, 플라 크리머(이상 미국), 에리아 주타누간(태국) 등 LPGA 무대를 호령하는 쟁쟁한 골퍼들도 이 상을 받은 바 있다.

고진영, LPGA 투어 신인상 확정 한국 선수 4년 연속 수상

고진영(23)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18 시즌 신인상 수상을 사실상 확정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진영은 21일 끝난 LPGA 투어 부의 상하이 대회까지 신인상 포인트 1천137점을 기록했다. 2위 조지아 홀(잉글랜드)이 754점으로 고진영을 383점 차로 뒤쫓고 있는 가운데 올해 남은 대회는 4개밖에 없다. 신인상 포인트는 우승자에게 150점을 주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홀이 남은 4개 대회 가운데 세 차례 우승할 경우 역전할 수도 있다. 그러나 LPGA 투어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홀은 남은 4개 대회 가운데 아시아에서 열리는 대만, 일본, 중국 대회에 모두 불참할 예정”이라고 밝혀 홀은 신인상 경쟁에서 탈락했다.

오히려 현재 3위인 류위(중국)가 최근까지도 역전 가능성이 있었다. 올해 남은 4개 대회에 모두 출전할 예정인 류위는 상하이 대회 전까지만 하더라도 산술적인 가능성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상하이 대회에서 공동 9위를 기록, 고진영과 격차를 643점까지 좁히는데 그쳤다. 류위는 남은 4개 대회에서 모두 우승해도 신인상 포인트 600점을 추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

에 고진영을 추월할 수 없다.

이로써 고진영이 올해 신인상을 받지 못할 경우의 수는 홀이 갑자기 계획을 변경해 11월 일본, 중국 대회에 출전하고 시즌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까지 3개 대회에서 연달아 우승해야만 가능해진다. 또 이 경우와 동시에 고진영은 남은 대회에서 신인상 포인트를 거의 추가하지 못해야 한다는 희박한 가능성까지 동반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홀이 갑자기 일본, 중국 대회에 출전할 가능성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고진영의 신인상 수상은 사실상 확정된 것과 다름이 없다.

지난해 10월 국내에서 열린 KEB하나은행 챔피언십에서 우승, 올해부터 LPGA 투어에 진출한 고진영은 2월 호주오픈을 제패하는 등 올해 22개 대회에 출전해 우승 1회, 준우승 1회 등의 성적을 냈다. 특히 호주오픈은 고진영의 투어 데뷔전으로 투어 데뷔전에서 곧바로 우승한 것은 1951년 이스턴오픈에서 베벌리 헨슨(미국)이 달성한 이후 67년 만에 나온 대기록이다.

한국 선수의 LPGA 투어 신인상 수상은 1998년 박세리를 시작으로 올해 고진영이 12번째다.

MLB의 위기 ... 관중수 6년 연속 감소

미국 메이저리그(MLB)가 ‘지루하다’라는 질적인 평가와 함께 양적으로 ‘관중 감소’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26일 ‘서울신문’이 베이스볼 레퍼런스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메이저리그 정규시즌 관중 숫자는 2012년 7,486만 명(평균 3만 806명, 2011년 대비 1,43만 명 증가)을 기록한 이후 2018년까지 6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2018년 시즌 관중은 총 6,967만 명(평균 2만 8,659명)으로 2003년 이후 15년 만에 7,000만 관중 이하를 기록한 시즌이 됐다.

2018년 관중은 2017년 대비 4%가 넘는, 300만 관중 감소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다. 팬들의 연령층도 다른 스포츠 종목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 이로써 140년 역사의 거대 비즈니스 ‘야구 시장’이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는 예측도 대두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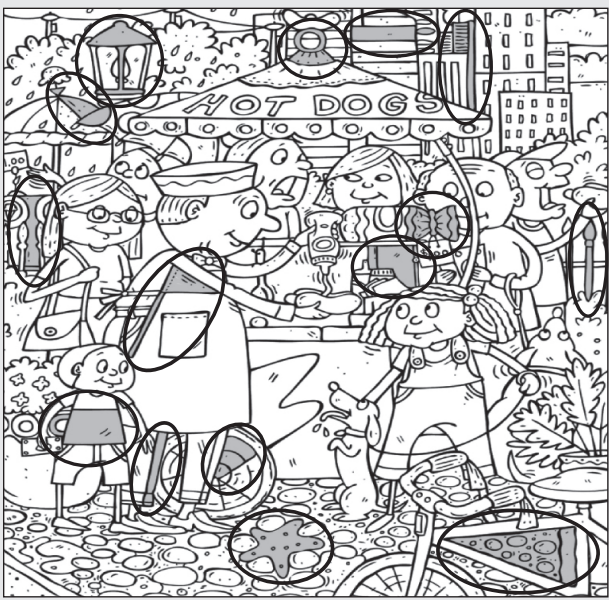
세계적인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이 스포츠 비즈니스 저널의 기사를 인용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메이저리그 팬은 평균 57세로, NFL(풋볼)의 50세, 47세인

NHL(아이스하키), 마이클 조던 시대의 인기를 회복했다는 평가를 받는 NBA 팬 평균 연령인 42세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를 반영하듯 2017년 갤럽의 ‘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조사 결과 MLB(9%)는 이미 NBA(11%)에 추월당했다. 연령별 분석을 들여다보면 55세 이하 연령대에선 메이저리그(6.5%)는 축구(10.5%)에도 선호도가 뒤졌다.

경기 시간도 MLB 위기의 요인이다. 2018년 시즌 메이저리그는 경기 시간 단축을 위해 파격적인 ‘투구 없는 고의사구’와 ‘마운드 방문 횡수 제한’ 제도를 도입했지만 그 효과는 체감하기 힘들다. 이런 까닭에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구단들은 경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3시간’이라는 벽과 사투를 벌이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경기당 투입하는 투수의 숫자 증가(1908년 1.40명, 1946년 2.09명, 2015년 4.11명, 2018년 4.36명, 투수 교체 소요 시간은 평균 3분), 최근 도입된 비디오 판독 제도 등은 경기 시간 단축의 방해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P31 숨은그림찾기 정답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기찬 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부활교회

St. Anselm's Episcopal Church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Blvd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요일&목요일
오전10시30분

☎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

좋은신문 알찬신문 ‘타운뉴스’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개인의 작은 권리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기사와 한인들의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싣고 격조높은 기사와 광고만을 게재하는 ‘타운뉴스’와 함께 신문을 만들어 나갈 분은 연락주시 바랍니다.



* 광고영업직 0명

제출서류: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제출서류를 이메일로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심사 후 면접 (개인별 통보)

E-mail: info@townnewsusa.com

11501 Brookhurst St. #202, Garden Grove, CA 92840